현 상황에서 하늘로 넋이 나간 사람

(고린도전서 7:17~24)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현 상황에서 하늘로 넋이 나간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현 상황에서 하늘로 넋이 나간 사람”
본문에서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이 눈에 띄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읽다 보면 결혼 이야기에서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주제를 바꾸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주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소재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변함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하는데 대체 무엇이 아무것에 해당된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근본적인 기준과 관점과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율법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교인들의 관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을 “현 상황에서 하늘로 넋이 나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넋이란 곧 정신이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마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쳐두고 같은 의미인 넋이라고 쓴 이유는 “넋이 나갔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뜻하는 바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이고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넋이 나갔다”고 한다면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실제 삶과 교리를 같이 머금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넋이 나갔다”는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넋이 나갔다”는 표현을 언제 쓰는지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쉽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하고 반응하고 처치하고 다룹니다. “넋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과 반응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 사람이 넋이 나가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연예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유명한 작가님이 계셨습니다.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첫 딸을 낳으셨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래층에 세를 들인 사람의 집에 동갑내기 아들과 놀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겨울이라 난로에 물을 데우고 있었는데 그 집 아이가 물통을 밀어 넘어

뜨리는 바람에 작가님의 딸이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저는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던 때였는데도 너무나 절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작가 부부는 지하실에 술병이 가득 쌓일 정도로 술만 드셨다고 합니다. 집안은 온통 쓰레기더미로 변해버렸고 작가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부모의 넋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교인들께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때 삶의 현장에서 넋이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혹은 지금 처해있는 현장과는 무관하지만 어떤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마음에 부딪힐 때 넋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바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넋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장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대응하고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넋이 나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넋이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한 충격에 의해서 넋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넋이 나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좋음에 끌려서 넋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현장에서 넋이 나간 사람이 된 뒤에 그 넋은 아버지의 좋음에 끌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넋이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에 반응하고 대응하며 처치하고 관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와 성만찬이 연관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죽음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1/n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행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넋이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넋이 나갔구먼!”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주

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9장 51절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24장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별세와 승천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넋이 삶의 현장을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단순히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제공하시면서 나를 부르실 때는 세상에서 넋이 나간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넋이 나가는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자 정신인 넋은 그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놔두고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의 처지와 상황과 문젯거리와 신분을 그대로 놔두고 넋이 나가는 것입니다. 넋이 나간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댈 수 없습니다. 넋이 남아있어야 주어진 상황에 대해 대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넋이 나갔으니 몸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서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제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라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당장의 문젯거리가 있고 주어진 상황과 처지가 있으며 신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다 놔두고 넋이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골똘하게 생각하며 대처하고 대응할 수 없는 넋이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넋이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제공하시며 부르실 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도 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분으로써 해야 될 일 따위에 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놔두고 넋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오늘

도 일어났으면 넋이 나가야 한다. 너에게 오늘 하루 주어질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너의 신분에서 무엇을 해야 하든지, 너의 넋은 삶의 현장을 빠져나가서 나에게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넋 나간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현장에서 대처하고 대응하고 반응하고 처치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몸으로 만나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닐 때는 넋이 나간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현장을 마주하고 내일을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부르십니다. "너는 오늘도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발생한 돈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자 해서는 안 된다. 넋이 돈 문제에 꽂혀서 '콩 놔라, 팥 놔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만들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승천의 길을 따라서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이 베다니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매일매일 베다니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넋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18~19절에서는 할례 여부가 언급됩니다. 또 21~22절에서는 노예와 자유인이 언급됩니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신분이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넋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제공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는 넋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돈을 벌었어도 넋이 나가야 될 사람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지 못했어도 넋이 나가야 될 사람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결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할례나 무 할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분이 노예나 자유인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넋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삶의 현장에서 넋이 나가야 할까요?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삶의 현장에서 넋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도 넋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삶의 현장은 오로지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넋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조물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넋이 돈 문제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넋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넋이 나가버리는 상황은 무서운 일입니다.
지구상의 77억 인구가 살아가는 각 자리와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넋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스스로 문제와 관여하는 동안 각 사람의 호흡과 몸속 세포까지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넋은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넋이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넋은 튕겨져 나간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조물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넋이 개입하실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려고 예수님의 죽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에 개입하려 한다면 조물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넋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넋이 제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넋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간 넋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옆입니다. 넋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있음을 느끼는 의식의 기능과 좋음을 소망하는 욕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 마음은 존재합니다. 마음인 넋은 아버지 옆에 있을 때에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넋은 아버지 옆이 아닌 삶의 현장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빠져나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 넋이 이 땅에 머무는 모습을 본다면 “넋이 세상으로 나갔다!”며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서

있음과 좋음을 찾아야 될 넋이 땅에서 기어 다니게 되었으니 “저런! 넋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넋은 하나님의 넋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넋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신 현장은 하늘입니다. 사람의 넋인 마음은 있음을 느끼며 의식하고 좋음을 소망하며 욕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넋에 제공된 현장은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넋은 원래 있어야 될 하늘이라는 현장에서 빠져나가 삶이라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은 조물주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렇기에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넋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넋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넋은 튕겨져 나가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이어서 할례와 신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이 땅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내 넋이 본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의 현장을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나 할례나 신분은 문젯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넋이 하늘에서 빠져나와 땅에서 뒹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빠져나온 넋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넋이 나갈 길로써 주님의 죽음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넋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의 넋은 하늘로 올라와야 한다. 세상에 빠져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의 넋이 붙잡을 대상은 하늘 보좌에 있는 나뿐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땅에서 무엇을 하며 다니는 것이냐?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너의 넋이 있어야 할 자리는 천국이다. 더 이상 천국에서 넋 나간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로 와라. 너의 넋이 있던 삶의 현장은 나의 넋이 들어가야 할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나의 넋은 하늘로 가고 하나님의 넋이 삶의 현장에 들어오실 때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일에는 상관이 없음을 말합니다. 21~23절을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관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넋이 나간 사람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의 처지란 예수님께 있어서 베다니와 같은 곳입니다. 삶의 현장은 나의 넋이 하늘로 빠져나가야 할 비행장입니다. 비행기가 비행장을 끌고 이륙할 수는 없습니다. 이륙하기 위해서는 비행장을 놔두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바가지로 물이라도 가져다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넋이 나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집 사람들이 물을 붓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집이 불타는 걸 보면서도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집이 불타고 있다는 충격 때문에 넋이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앞서 딸이 죽은 모습에 충격을 받아 넋이 튕겨져 나간 작가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넋이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튕겨져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계명이나 율법이라고 하면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넋이 박혀있는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불난 집주인이 넋이 나갈 때에 이웃집 사람들이 불을 꺼주듯이, 내 넋이 나가야 하나님의 넋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계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의 죽음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넋이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붙잡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일이 벌어질 때 불난 집주인처럼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넋이 나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발생한 문제의 충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좋기 때문에 넋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지는 변화산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발광체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이셨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좋음의 충격 앞에서 넋이 나가버립니다. 베드로의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세상일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정신 상태가 아버지 좋음의 충격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좋음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삶의 현장에도 매 순간 좋음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승진이 좋습니다. 승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장님이 "수고하네!"라고 웃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따지자면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큰일에 이르기까지 한량이 없습니다. 돈이나 건강 혹은 자녀의 형통을 비롯한 수많은 일들이 좋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생각만 해도 좋은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좋음 앞에서는 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좋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이전에는 돈을 벌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넋이 돈에 박혀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음을 믿게 되면 돈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좋음이 믿음 안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면 돈은 좋다고 느낄 것도 아니고 없다고 나쁠 것도 아니게 됩니다. 내 넋은 빨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넋이 빠지는 정도를 넘어서 줄행랑을 치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붙잡고 세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붙잡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줄행랑을 치듯이 넋이 빠져나가는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하늘에 올라간 마음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있어야 될 곳으로 넋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의 넋이 나간 자리에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넋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넋인 성령께서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가시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체와 연관된 삶의 현장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러나저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계명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붙잡고 넋이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넋은 천국에서 제자리를 찾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넋이 내려오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볼 때 천국에서 넋 나간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넋이 똑바르게 박힌 사람으로 머무시

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국에서 넋 나간 사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세상에 넋이 들어가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모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죽음을 붙잡고 넋 나간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유일한 계명을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현장에 조물주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넋이 내려오셔서 움직이심을 확인하는 은혜 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